

추석가정예배순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추석가정예배순서

인도자 : 가족 중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시간을 정한 뒤,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모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도자, 기도자를 정합니다.

예 식 사 인 도 자

2022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기도 인 도 자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7)

찬 송 559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사 도 신 경..... 다 같 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신 명 기 30 장 15-20 절 가족 중에서

- 15.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 16.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 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설 교 인 도 자

(사회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설교는 선택에 대한 권고가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16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치솟아 오르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것입니다(19절).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 먹음직한 것은 오히려 사망을 불러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복을 얻는 길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찬	송 588장(또는 가족이 좋아하는 찬송)	다 함	계	
기	도	가족	중에서	
주	기	도	문 다 함	계

*각 가정은 예배문을 참조하여 가정형편에 맞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묘 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 (혹은 조상)의 무덤 앞에 모여
잠시 동안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 찬송 : 489장(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즐겨 부르시던 찬송)
- 명절에 부모님을 추모하며 드리는 기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흠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저희를 기르실 때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명절에도 시름이 많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때때옷으로 차려입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못 다한 효도를
자식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형편에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희망의 터전을 일구다 가신 부모의 본을 따라
저희들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 : 데살로니가전서 4 : 13 - 18
- 설교 : (생략할 수 있다.)
- 찬송 : 491장
- 주기도문